

문과대·동아시아학술원 CAMPUS Asia 특강

근세 유럽 문예공화국에서의 일본의 역할

The role of Japan in the Early Modern Republic of Letters

近世ヨーロッパの文芸共和国における 日本の役割

Francesco Campagnola (Ghent University, 国際交流基金日本学フェロー)

14-18세기에 이르는 유럽 사상/철학을 거점으로 삼아 일본의 에도시대부터 전후에 걸쳐 발현되는 근대/인문 정신의 기원에 대해 사상·역사·문학을 횡단하며 탐색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. 저서로 *Teorie dell'analogia tra Irlanda e Inghilterra nel secolo XVIII. La fine dell'unità della ragione*, (Olschki, 2012)가 있으며, 주요 논문으로 「自己、社会、そして神に反して——哲学・法学・文学に見る18世紀イタリアの自殺論」, 「「文芸共和国」の分断——学問の共同体における制度と個人の関係」 등이 있다.

토론 | 이백광(경희대)

일시 | 2019년 1월 28일(월) 16:00~18:30

장소 |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9B208

주최 :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·동아시아학술원 CAMPUS Asia-한일중 사업단

비교문화연구소, 국어국문학과

*강연은 영어로 진행되고 토론은 한국어 통역이 제공됩니다.